

부록

—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20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20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 전체
GDP 증가율		-10.5	-5.3	-6.0	-7.0	-9.0	-12.9	-30.0	-7.7
1인당 GDP 증가율	% (연증가율)	-11.5	-6.1	-6.9	-8.1	-10.1	-14.4	-29.7	-8.5
소비자물가 상승률		35.2	3.1	3.1	2.0	4.0	1.8	1,813.1	2.7
명목 GDP	십억 달러	382.8	1,363.8	245.4	264.9	1,040.4	195.8	48.6	4,179.1
1인당 명목 GDP	달러	8,433	6,450	12,612	5,207	8,069	5,844	1,739	6,560
실업률(연평균)	%	11.8	13.4	10.9	15.8	4.5	7.8	6.8	9.9
수출	십억 달러	56.0	210.0	65.7	32.6	401.1	36.2	9.3	931.1
수입		35.2	155.7	53.2	40.1	373.8	32.4	6.6	832.1
무역수지		20.8	54.3	12.5	-7.5	27.3	3.8	2.8	99.0
외환보유고		40.1	356.1	38.6	57.0	199.8	74.2	6.4	883.9
경상수지	%	0.7	0.3	-1.6	-4.0	1.2	-1.1	-4.1	-0.5
총정부부채	(GDP 대비)	95.4	90.6	41.2	68.1	56.0	30.2	34.9	53.4

주: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는 IMF 통계 기준, 나머지 통계는 ECLAC 통계 기준. 베네수엘라 실업률은 2018년, 총정부부채는 2017년 기준

출처: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국제통화기금(IMF)

II. 실물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중남미 경제는 -7.7% 역성장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음.

| 1900년대 이후 중남미 경제는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0년 세계 대공황,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1970년대 오일쇼크, 1980년대 외채위기, 1994년 멕시코 테킬라 위기, 1990년대 후반 신흥시장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숏한 경제위기를 경험했음.

| 이러한 경제위기 중 실물경제 측면에서 지금까지 최악의 위기는 1914년 1차 세계대전 (-4.9%)과 1930년 세계 대공황(-5.0%)이었음.

:: 소지역별로는 중미 경제보다는 남미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음.

| 남미 경제는 소극적인 정부 대응정책으로 코로나19의 인명피해가 큰 데다 봉쇄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으로 -7.3%의 역성장을 기록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30.0%), 페루(-12.9%), 아르헨티나(-10.5%)가 -10%대 이상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남미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추김.

| 그에 반해 브라질 경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4.1% 하락에 그침.

:: 중미 경제(멕시코 제외)도 큰 폭의 경기침체를 보였으나 그 하락 폭은 남미 경제보다는 다소 낮은 -6.5%에 머뭄.

| 중미 지역은 식량 및 에너지 순수입국이어서 일차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니카라과 등을 제외하고 중미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어 남미 지역에 비해 인명피해 충격이 작은 상황임.

| 그러나 관광 수입 감소와 미국의 경기침체 따른 송금 및 FDI 유입 감소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음.

| 중미 국가 중에서는 파나마(-11.0%), 엘살바도르(-8.6%)의 경기침체가 두드러졌음.

:: 멕시코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책 부재에 따른 커다란 인명피해, 봉쇄정책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마비,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하락 폭은 중남미 평균을 웃도는 -8.2%에 달함.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2.1	2.8	-2.6	-2.1	-10.5
브라질	-3.3	1.3	1.8	1.4	-4.1(c)
칠레	1.7	1.2	3.9	1.1	-6.0
콜롬비아	2.1	1.4	2.5	3.3	-7.0
멕시코	2.6	2.1	2.2	-0.1	-8.2(c)
페루	4.0	2.5	4.0	2.2	-12.9
베네수엘라	-17.0	-15.7	-19.6	-28.0	-30.0
중남미(b)	-1.2	1.1	1.1	0.1	-7.7

주 | (a)는 잠정치, (b)는 2010년 불변가격기준, (c) 실제치

출처 | ECLAC

∴ 1인당 GDP 증가율도 -8.5% 역성장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가 -29.7%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페루(-14.4%), 아르헨티나(-11.5%), 멕시코(-10.1%)가 -10%대 이상의 역성장을 기록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6.1%), 칠레(-6.9%), 콜롬비아(-8.1%)가 중남미 평균을 밑도는 하락 폭을 보임.

중남미 주요국의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3.1	1.8	-3.5	-3.0	-11.5
브라질	-4.1	0.5	0.5	0.4	-6.1
칠레	0.4	-0.2	2.5	-0.1	-6.9
콜롬비아	0.7	-0.2	1.0	1.9	-8.1
멕시코	1.4	0.9	1.1	-1.4	-10.1
페루	2.4	0.8	2.2	0.5	-14.4
베네수엘라	-16.4	-14.4	-18.2	-27.1	-29.7
중남미(b)	-2.2	0.1	0.0	-1.0	-8.5

주| (a)는 ECLAC 잠정치, (b)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ECLAC

2. 투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투자도 크게 감소함.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건설 프로젝트 중단, 경제활동 축소에 따른 기계 및 장비 투자 감소, 중남미 각국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기계 및 장비의 수입 가격 상승,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 등의 여파로 중남미 모든 국가에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

:: 큰 폭의 투자 감소로 2020년 GDP대비 투자율은 전년대비 1.3%포인트 (19.0% → 17.7%) 하락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페루(2.2%p), 멕시코(1.9%p), 콜롬비아(1.6%p)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투자율 하락세를 보임.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칠레(22.1%), 콜롬비아(19.7%), 멕시코(19.3%), 페루(19.2%)가 중남미 지역 평균 이상의 투자율(GDP대비)을 기록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17.3%), 브라질(14.7%)은 중남미 평균을 밑도는 낮은 투자 수준을 보임.

중남미 주요국의 투자율(GDP대비)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17.7	18.2	19.7	17.4	17.3
브라질	15.0	14.6	14.8	15.1	14.7
칠레	22.3	21.3	22.2	21.7	22.1
콜롬비아	23.2	21.6	21.3	22.3	19.7
멕시코	23.6	22.9	22.7	21.4	19.3
페루	22.0	20.6	21.7	21.4	19.2
베네수엘라	0.1	-3.7	-	-	-
중남미	18.3	18.3	19.4	19.0	17.7

주 | (a)는 잠정치
출처 | IMF

3.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상품 수출)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로 2020년 수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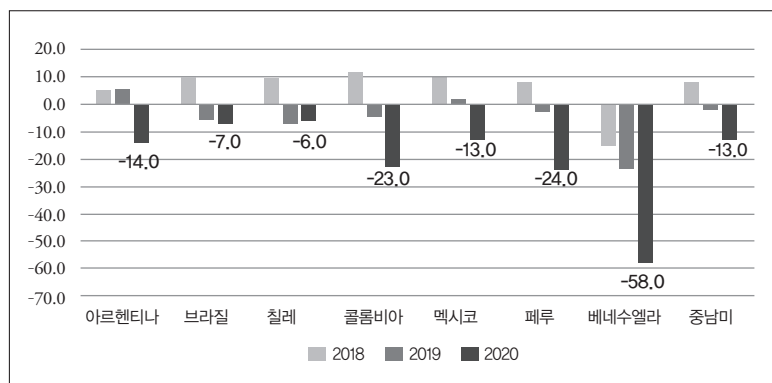
| 2020년 중남미 지역의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7%, -6% 감소함.

| 국제유가 하락으로 탄화수소 수출국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19%)함. 그에 반해 2020년 5월부터 농산물 및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농산물 및 광물 수출국의 수출은 각각 -3% 감소에 그침.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조치 장기화로 생산과 수출관련 활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 감소가 심화됨.

중남미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큰 폭의 수출 감소로 중남미의 수출 규모는 2019년보다 1,391억 달러 줄어든 9,310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4,011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100억 달러), 칠레(656억 달러), 아르헨티나(560억 달러), 페루(362억 달러), 콜롬비아(326억 달러), 베네수엘라(93억 달러)가 이음.

중남미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57,930	58,636	61,638	65,247	56,033
브라질	184,453	217,243	239,034	225,648	210,014
칠레	60,733	68,859	75,462	69,889	65,696
콜롬비아	33,091	39,676	44,373	42,368	32,623
멕시코	374,304	409,806	451,054	461,040	401,105
페루	37,082	45,422	49,066	47,688	36,243
베네수엘라	27,403	34,030	28,983	22,227	9,335
중남미	897,560	1,008,064	1,092,235	1,070,214	931,086

주 | 2020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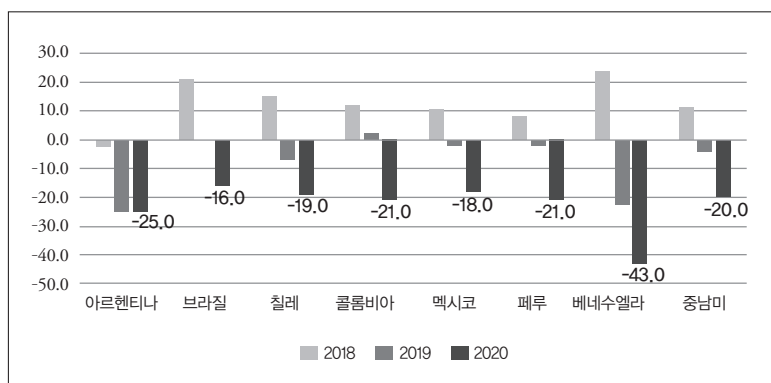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전년대비 -20% 하락함.

| 2020년 중남미 지역의 수입 물량과 수입 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14%, -4% 감소함.

| 코로나19 충격과 그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

중남미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중남미 주요국 모두에서 수입은 두 자릿수의 감소를 기록함.

| 최악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폭의 수입 감소세(-43.0%)를 보였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25.0%), 콜롬비아(-21.0%), 페루(-21.0%), 칠레(-19.0%), 멕시코(-18.0%), 브라질(-16.0%)이 이음.

:: 이러한 수입 감소로 2020년 중남미 지역의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2,080억 달러 감소한 8,320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737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1,556억 달러), 칠레(532억 달러), 콜롬비아(401억 달러), 아르헨티나(351억 달러), 페루(324억 달러), 베네수엘라(65억 달러)가 이음.

중남미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53,505	64,101	62,505	46,928	35,196
브라질	139,416	153,215	185,447	185,348	155,692
칠레	55,293	61,500	70,783	65,724	53,236
콜롬비아	43,239	44,247	49,583	50,818	40,146
멕시코	387,369	420,790	464,850	455,826	373,777
페루	35,128	38,722	41,870	41,074	32,448
베네수엘라	16,370	12,023	14,866	11,504	6,557
중남미	911,859	976,291	1,085,188	1,040,075	832,060

주 | 2020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 2020년 중남미 지역의 교역조건은 전년대비 -2% 하락함.

| 그러나 교역조건 하락은 국별 및 소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탄화수소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14% 하락한 데 반해 산업용 광물 및 금속 수출국의 교역조건은 -3%, 농산물 수출국의 교역조건은 -0.3% 하락에 그침.

| 에너지 수입국인 중미와 카리브(트리니다드토바고 제외)의 경우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은 각각 5% 및 3.4% 개선됨.

중남미 주요국의 교역조건 추이

(단위: 2010 = 100)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107.3	104.1	105.1	104.4	102.4
브라질	88.1	93.2	91.3	91.8	91.4
칠레	90.5	100.0	97.5	96.7	99.5
콜롬비아	68.2	79.7	87.2	86.6	70.8
멕시코	93.6	96.5	96.1	98.3	95.6
페루	86.5	93.0	92.6	91.0	94.1
베네수엘라	55.3	64.8	78.6	72.3	55.9
중남미	89.8	94.1	94.4	95.1	93.0

주 | 2020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흑자에 힘입어 2020년 중남미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는 2019년보다 3배 증가한 990억 달러에 달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무역흑자가 발생함.

| 멕시코의 무역흑자 규모가 2019년 52억 달러에서 2020년 273억 달러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무역흑자 규모 면에서는 브라질이 543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무역흑자의 55%를 차지함.

중남미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4,425	-5,465	-867	18,227	20,837
브라질	45,037	64,028	53,587	40,473	54,321
칠레	5,440	7,359	4,679	4,165	12,459
콜롬비아	-10,148	-4,571	-5,210	-8,450	-7,523
멕시코	-13,065	-10,984	-13,796	5,214	27,327
페루	1,954	6,700	7,196	6,614	3,794
베네수엘라	11,033	22,007	14,117	10,723	2,778
중남미	-14,299	31,773	7,047	30,139	99,026

출처 | ECLAC

:: 대외경제의 기초체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경상수지는 무역흑자 증가에 힘입어 크게 개선됨.

| 중남미 지역의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2019년 897억 달러에서 2020년 216억 달러로 크게 축소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됨.

중남미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15.1	-31.1	-27.0	-4.0	2.6
브라질	-24.2	-15.0	-41.5	-50.9	3.7
칠레	-5.0	-6.5	-10.7	-10.9	-3.9
콜롬비아	-12.0	-10.2	-13.1	-13.7	-10.5
멕시코	-24.2	-20.5	-25.4	-4.4	13.0
페루	-5.1	-2.8	-3.8	-3.1	-2.1
베네수엘라	-3.9	8.7	8.6	5.4	-2.0
중남미	-97.7	-86.2	-130.2	-89.7	-21.6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IMF

:: 경상수지적자 규모 축소로 중남미 지역의 GDP대비 경상수지도 전년보다 크게 개선(2019년 -1.7% → 2020년 -0.5%)됨.

| 국별로는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섬.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국가들이 GDP대비 3% 미만의 양호한 경상수지적자 수준을 보임.

중남미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2.7	-4.8	-5.2	-0.9	0.7
브라질	-1.3	-0.7	-2.2	-2.8	0.3
칠레	-2.0	-2.3	-3.6	-3.8	-1.6
콜롬비아	-4.3	-3.3	-3.9	-4.2	-4.0
멕시코	-2.3	-1.8	-2.1	-0.3	1.2
페루	-2.6	-1.3	-1.7	-1.4	-1.1
베네수엘라	-1.4	6.1	8.8	8.4	-4.1
중남미	-2.0	-1.6	-2.5	-1.7	-0.5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IMF

4.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 코로나19에 대응한 보건의료부문 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책으로 중남미 각
국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함.

| 재정지출 확대로 중남미 지역의 재정적자(GDP대비)는 2019년 -4%에서 2020년 -10.3%
로 크게 늘어 남.

|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의 재정적자가 -6%에서 -16%로 10%포인트 증가함.

:: 큰 폭의 재정적자 증가로 중남미 지역의 총 정부부채(GDP대비)는 전년대
비 7.4%포인트 상승한 53.4%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남미가 7.4%포인트, 중미가 7.3%포인트 증가함.

| 국별로 중남미 평균 증가율(7.4%p)을 상회하는 국가는 총 7개국으로 그중 브라질
(14.8%p), 도미니카공화국(14.1%p), 콜롬비아(12.5%p), 엘살바도르(10.9%p)가 -10%p 이상
의 정부부채 증가를 기록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가 95.4%(GDP대비)로 가장 높은 정부부채 수준을 보였으며, 브라질
(90.6%), 코스타리카(66.2%), 콜롬비아(61%)가 그 뒤를 이음.

| 그에 반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파라과이와 페루가 각각 27.6%, 28%로 가장 낮은 수준
의 정부부채를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총 정부부채(비금융부문)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53.3	56.6	86.4	90.2	95.4
브라질	70.0	74.0	77.2	75.8	90.6
칠레	30.6	32.1	34.8	38.0	41.2
콜롬비아	54.9	54.4	57.5	57.3	68.1
멕시코	49.4	46.9	46.9	47.1	56.0
페루	22.7	24.8	25.8	26.8	30.2
베네수엘라	31.1	34.9	-	-	-
중남미(b)	38.4	39.9	43.5	46.0	53.4

주 | (a) 2020년은 잠정치, (b)는 카리브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단순 평균
출처 | ECLAC

5. 실업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크게 악화됨.

| 2020년 실업률은 고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 포인트 증가한 9.9%에 달함. 중남미 지역에서 고용률은 2020년 2분기에 10%포인트 하락하며 최악의 감소세를 보임. 이 같은 고용률 감소로 약 4,700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함.

| 중남미 주요국 모두에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은 국가에서 실업률 증가세가 두드러짐.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함.

| 그에 반해 비공식인구가 많은 멕시코와 페루는 중남미 평균을 크게 밑도는 실업률을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평균 기준)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8.5	8.4	9.2	9.8	11.8
브라질	11.5	12.7	12.3	11.9	13.4
칠레	6.7	7.0	7.4	7.2	10.9
콜롬비아	8.6	8.8	9.1	9.9	15.8
멕시코	3.9	3.4	3.3	3.5	4.5
페루	4.2	4.1	3.9	3.9	7.8
베네수엘라	7.3	7.2	6.8	—	—
중남미	7.8	8.1	7.9	8.1	9.9

주 | 2020년은 9월까지 추정치,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 비율
출처 | ECLAC

Ⅲ. 금융·외환지표

1. 환율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일차산품 국제가격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함.

| 2020년 중남미 지역(10월 말, 17개국 기준)의 평균 통화가치(달러대비)는 2019년 말에 비해 -16.3% 하락함.

| 중남미 각국의 통화는 2020년 상반기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반해 2020년 3분기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임.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통화가치 하락이 두드러짐.

|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전년대비 40.5%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브라질의 헤알화 가치도 전년대비 29.1% 하락하며 큰 폭의 약세를 보임.

| 그밖에 페루(9.1%), 멕시코(5.1%), 콜롬비아(4.2%)의 화폐의 가치도 약세를 면치 못함.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통화가치가 하락한 데 반해 칠레의 페소화는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5.6% 가치가 상승함.

| 이러한 페소화 가치 상승은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칠레의 주력 수출 상품인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됨.

중남미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환율	2019년 대비 변동률(%)
아르헨티나	15.85	18.60	37.68	59.88	84.08	40.5
브라질	3.26	3.31	3.87	4.02	5.19	29.1
칠레	667.29	615.22	694.02	752.08	710.00	-5.6
콜롬비아	3,000.71	2,971.63	3,247.03	3,282.76	3,419.50	4.2
멕시코	20.73	19.66	19.64	18.93	19.90	5.1
페루	3.35	3.24	3.37	3.31	3.61	9.1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치 상승)을 의미
출처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중남미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에 힘입어 정책금리는 2020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함.

| 국별로는 콜롬비아와 멕시코가 7번 금리를 낮추는 등 가장 빈번한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함.

• 멕시코와 파라과이의 누적 금리 인하 폭은 3.0%, 3.25%로 중남미 국가 중 인하 정도가 가장 큼.

| 이러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중남미 각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을 기록함.

|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의 정책금리는 1% 미만을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28.8	26.4	44.4	65.2	40.0
브라질	14.2	9.8	6.6	6.0	3.0
칠레	3.5	2.7	2.6	2.5	0.8
콜롬비아	7.1	6.0	4.3	4.3	3.1
멕시코	4.2	6.8	7.7	8.0	5.5
페루	4.2	3.8	2.8	2.6	0.8
베네수엘라	6.5	6.4	6.2	16.5	—
중남미(b)	9.8	8.8	10.7	15.0	8.9

주 | (a)는 2020년 10월 기준, (b)는 7개국 단순 평균
출처 | ECLAC

3. 소비자물가상승률

:: 중남미 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총수요가 급감하면서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 202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한 2.7%를 기록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에서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짐.

- 특히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는 52.9%에서 35.2%로 크게 하락함.

:: 그에 반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오히려 소비자물가가 소폭 상승함.

| 중남미 지역의 식품 및 비주류 음료의 평균 물가는 2019년 9월~2020년 9월 기간 4.1%에서 6.9%로 2.8%포인트 상승함.

-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기후적 요인, 공급망의 문제, 환율 변동성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함.

| 한편 서비스 물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2.9%에서 1.4%로 1.5%포인트 하락함.

:: 소지역별로는 남미에서 물가가 하락한 데 반해 멕시코 및 중미에서 물가는 상승세를 보임.

| 2019년 9월~2020년 9월 기간 남미에서 소비자 물가는 2.5%에서 2.3%로 0.2%포인트 하락함.

| 그에 반해 같은 기간 멕시코 및 중미에서 소비자 물가는 2.6%에서 3.5%로 0.9%포인트 상승함.

중남미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38.5	25.0	47.1	52.9	35.2
브라질	6.3	2.9	3.7	4.3	3.1
칠레	2.7	2.3	2.6	3.0	3.1
콜롬비아	5.7	4.1	3.1	3.8	2.0
멕시코	3.4	6.8	4.8	2.8	4.0
페루	3.2	1.4	2.2	1.9	1.8
베네수엘라	274.4	862.6	130,060.2	9,585.5	1,813.1
중남미(b)	4.1	3.6	3.2	3.1	2.7

주 | (a)는 2020년 10월까지 12개월 누적 기준, (b)는 가중평균, 아르헨티나, 아이티 및 베네수엘라 미포함
출처 | ECLAC

4. 국가위험도

:: 코로나19 여파로 중남미 각국의 국가위험도도 크게 상승함.

| 중남미 지역의 국가위험도(JP Morgan의 EMBIG¹⁾ 기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확대 등의 여파로 2020년 4월 702bps를 기록하며 정점에 달함.

| 이후 국가위험도는 2020년 10월 말 467bps까지 하락했으나, 이는 2019년 말 수준(346bps)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는 것임.

:: 중남미 주요국 모두에서 국가위험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예외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국가위험도는 크게 하락함.

| 국별로는 멕시코의 국가위험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전년대비 63.4%)했으며 콜롬비아(51.6%), 베네수엘라(47.2%)가 그 뒤를 이음.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국가위험도는 채무 스왑이후 신규 채권 발행에 힘입어 2020년 3월 말 3,800bps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해 2020년 10월 말 현재 1,482bps에 머물.

| 국별로 국가위험도 수준은 최악의 정치경제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채무 디폴트 위험에 빠져 있는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잇고 있음.

1) EMBIG는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을 의미하며, 보통 이머징마켓채권 지수로 불린다. 여기서 국가위험도는 EMBIG 채권 수익률과 미국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국가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가위험도 추이

(단위: bps, EMBI Global, 연말 기준)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455	351	817	1,744	1,482
브라질	330	232	273	212	309
칠레	158	117	166	135	174
콜롬비아	225	173	228	161	244
멕시코	296	245	357	292	477
페루	170	136	168	107	149
베네수엘라	2,168	4,854	6,845	14,740	21,698
중남미	473	419	568	346	467

주 | (a)는 10월 기준
출처 | ECLAC

5. 주가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남미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에 힘입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임.

| 아르헨티나 Merval 주가는 미국 ADR에 상장된 주요 기업 주가의 호실적에 힘입어 국가 채무 디폴트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약 23% 상승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6만 포인트까지 하락했던 브라질 Bovespa 주가는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과 함께 V자 반등에 성공했으며,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정치적 불안정 완화와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회복 등의 영향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3% 상승함.

:: 그에 반해 칠레와 콜롬비아 주가는 전년대비 각각 -10.2%, -13.5% 하락함.

| 특히 원유가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여 유가 등 원자재 국제가격 등락에 따른 경기 변동 폭이 큰 콜롬비아의 COLCAP 지수가 가장 큰 하락을 보임.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주가	2019년 대비 변화율(%)
아르헨티나(MERV)	16,918	29,975	30,292	41,671	51,226	22.9
브라질(BOVESPA)	60,227	77,020	87,887	115,645	119,017	2.9
칠레(GPA)	20,734	27,981	25,949	23,393	21,007	-10.2
콜롬비아(COLCAP)	1,352	1,514	1,325	1,662	1,437	-13.5
멕시코(PC)	45,643	49,354	41,459	43,657	44,066	0.9
페루(LIMA) IGBV	15,567	19,974	19,350	20,587	20,967	1.8
베네수엘라(BC)	31,705	1,263	1,605	831,880	1,332,059	60.1

출처 | tradingeconomics.com(검색일자: 2021년 1월 30일)

6. 외환보유고

::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2020년 중남미 지역의 총 외환보유고는 전년대 비 4% 증가한 8,839억 달러에 달함.

| 중남미 각국 중앙은행의 환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환보유고는 증가함.

| 이 같은 외환보유고 증가는 소비 및 투자 급락의 영향에 따른 수입 감소와 2020년 하반기 이후 국제 상품가격의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로 무역흑자 규모가 커진 데 기인함.

| 중남미 33개국 중 22개국에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는데, 국별로는 파나마의 외환보유고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음.

|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IMF 및 미국과 각종 협정 체결을 통해 환율 방어 능력을 크게 확대함.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는 IMF와 탄력적크레딧라인(FCL: Flexible Credit Line)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스왑 협정을 맺음.

:: 국별로 외환보유고 규모는 브라질이 3,561억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뒤를 멕시코(1,998억 달러)가 잇고 있음.

|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의 외환보유고가 중남미 전체 외환보유고의 62.8% 비중을 차지함.

| 중남미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규모 (64억 달러)가 가장 작음.

중남미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a)
아르헨티나	38,772	55,055	65,806	44,781	40,140
브라질	365,016	373,972	374,715	356,884	356,108
칠레	39,883	38,708	38,909	37,438	38,590(b)
콜롬비아	46,683	47,637	48,402	53,174	56,987(b)
멕시코	178,025	175,450	176,384	183,028	199,808
페루	61,746	63,731	60,288	68,370	74,229
베네수엘라	10,992	9,662	8,830	6,630	6,431
중남미	830,960	859,335	867,118	849,025	883,933

주 | (a)는 2020년 10월 말 기준, (b)는 2020년 9월 말 기준
출처 | ECLAC

7. 국가신용등급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치경제 혼란으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

| 파라과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3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

::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7개국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이 중에서도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등 6개국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등급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중남미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21년 2월 28일 기준)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일자	등급	일자	등급	일자
과테말라	Ba1 부정적	2020. 11. 10	BB- 안정적	2018. 10. 18	BB- 안정적	2020. 04. 03
도미니카 공화국	Ba3 안정적	2017. 07. 20	BB- 부정적	2020. 04. 16	BB- 부정적	2020. 08. 05
니카라과	B3 안정적	2020. 02. 14	B+ 안정적	2016. 02. 11	B- 부정적	2020. 06. 17
멕시코	Baa1 부정적	2020. 04. 17	BBB 부정적	2020. 03. 26	BBB- 안정적	2020. 04. 15
베네수엘라	Caa3 부정적	2018. 03. 09	SD 부정적	2017. 11. 14	NR 매우 취약	2019. 06. 27
볼리비아	B2 안정적	2020. 09. 22	B+ 안정적	2020. 04. 17	B 안정적	2020. 09. 30
브라질	Ba2 안정적	2018. 04. 09	BB- 안정적	2020. 04. 06	BB- 부정적	2020. 05. 05
아르헨티나	Ca 부정적	2020. 04. 03	SD	2020. 04. 07	CCC	2020. 10. 09
에콰도르	Caa3 부정적	2020. 04. 03	SD	2020. 04. 13	B- 안정적	2020. 09. 03
엘살바도르	B3 부정적	2021. 02. 05	B- 안정적	2018. 12. 28	B- 부정적	2020. 04. 30
온두라스	B1 안정적	2017. 09. 22	B+ 안정적	2016. 07. 18		
우루과이	Baa2 안정적	2017. 07. 13	BBB 안정적	2017. 05. 30	BBB- 부정적	2019. 06. 27
칠레	A1 부정적	2020. 08. 25	A+ 부정적	2020. 04. 27	A- 안정적	2020. 10. 15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일자	등급	일자	등급	일자
코스타리카	B2 부정적	2020. 06. 02	B 부정적	2020. 06. 09	B 부정적	2020. 05. 12
콜롬비아	Baa2 부정적	2020. 12. 03	BBB- 부정적	2020. 03. 26	BBB- 부정적	2020. 01. 04
트리니다드 토바고	Ba1 부정적	2020. 05. 22	BBB- 안정적	2020. 03. 26		
파나마	Baa1 부정적	2020. 10. 20	BBB 안정적	2020. 11. 24	BBB- 부정적	2021. 02. 03
파라과이	Ba1 안정적	2016. 06. 21	BB 안정적	2016. 06. 15	BB+ 안정적	2019. 12. 06
페루	A3 안정적	2017. 08. 23	BBB+ 안정적	2013. 08. 19	BBB+ 부정적	2020. 12. 15

주 | 음영으로 표시한 부문은 투자적격 등급을 의미함.

출처 | Moody's, S&P, Fitch 홈페이지